구급대원 45명 첫 출발

전북자치도, 2026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식
현장 최일선 구급인력 확충… 응급환자 대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신임 소방공무원 45명을 공식 임명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 소방공무원 45명은 전원 구급대원으로, 증가하는 응급출동 수요와 고도화되는 구급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전문인력으로 배치된다.

신임 구급대원들은 임명 이후 도내 각 소방관서에 배치돼 응급환자 이송, 현장 응급처치 같은 도민 생명 보호 임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신임 소방공무원 45명과 가족·친지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된 수여식은 신임 구급대원들의 공직 첫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돼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신임 구급대원들은 제111기 신규임용자 과정을 통해 중앙소방학교(충남 천안)에서 총 24주 동안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수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구급 분야 중심의 응급처치 훈련을 비롯해 실화재·재난 대응 훈련, 행정실무 교육이 함께 진행됐고, 소방관서 실습 3주 과정을 통해 실제 구급 현장 대응 능력도 갖췄다.

김관영 지사는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소방은 위기의 순간 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조직인 만큼, 재난이 복합·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과 안전 의식이 지역 안전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에서도 신임 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신임 소방공무원 45명을 공식 임명했다.

전주풍남 · 해바라기 로타리클럽, 연탄 나눔

전주풍남 로타리클럽과 전주해바라기 로타리클럽이 한겨울 추위 속에서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풍남 로타리클럽(회장 안창인)과 전주해바라기 로타리클럽(회장 장윤경)은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동 일원에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UN이 지정한 '2026 세계지원봉사의 해'를 맞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두 로타리클럽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 클럽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 총 200만원 상당의 연탄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은 완산동 일대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6가구로, 이번 연탄 지원을 통해 남은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보건소, '튼튼성장교실' 내달 26일까지

고창군보건소가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튼튼성장교실'을 2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튼튼성장교실'은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건강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내 9개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가 참여하며, 총 21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각 센터 교육실과 외부 체육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건소 영역별 담당자와 외부 전문강사 등 총 12명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교육 △요리체험을 통한 영양교육 △아토피 예방 및 관리 교육 △음주·흡연 예방 교육 △구강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등 건강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중심 건강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료애로 다시 하나되자… 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 정기총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회장 김재영)는 19일 오전 전주시 지회 사무실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교정인의 명예와 연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는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평생을 교정 현장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퇴직 교정 공무원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원들은 "명예롭게 퇴직한 이후에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깊은 공감을 나눴다.

총회에서는 현 임원진을 유임하기로 결정하고, 지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오랜 시간 지회를 묵묵히 지켜온 김용권 원로회원과 전형근 회원에게 감사장이 전달됐고, 지회 운영과 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조만기 회원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돼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또한 김태식 회원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며 지회에 새로운 활력을 더했다.

김재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물러났지만, 교정인의 책임과 연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회원 간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법 개정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김 회장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이어 교정공무원 역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가 정당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회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회원들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지회'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회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며 "작은 정성이 모여 후배 교정인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장수초·중,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대회 승전보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장수초등학교와 장수중학교 소프트테니스부가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메달을 획득하며 초·중 연계 육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초(교장 한재남)·장수중(교장 조영수) 소프트테니스부는 장수군 체육회와 장수교육지원청의 협력 아래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체육 활동이 중학교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순창군에서 열린 제67회 전국유소년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남자 초등 4학년 이하부 개인복식 1위(신지웅·송시혁)를 비롯해 남·여 4·6학년 개인복식 3위와 여자 초등부 단체전 3위 등 학년별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남원시니어클럽은 19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시니어클럽 관장,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시의회 의장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어르신들은 책임감 있는 활동과 안전한 일자리 수행을 다짐했으며,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시청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니어클럽은 2026년 한 해 동안 총 3,37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 △공익활동 12개 사업단 △역량활용 17개 사업단 △공동체사업 14개 사업단 △취업형사업 3개 사업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을가꾸기, 안전모니터링, 도시락 사업, 취업형 일자리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약 169억 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야간 민원실 운영… 시민 생활여건 고려

남원시는 시민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고려해 2026년에도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야간 민원실은 2009년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 직장인과 학생 등 평일 낮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교부 및 제증명 발급서비스(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지적·토지·건축 등)와, 2025년 3월부터는 민원 접수도 가능해져 서비스 폭이 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1일 '2026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1일, 시청 관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2026년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진행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서도 실시한다.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헌혈을 위해 전날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으며, 헌혈자에게는 헌혈증서와 함께 기념품과 간식이 제공되며, 헌혈 1회 시 봉사 시간 4시간 및 기관 내규에 따라 상시 학습 시간이 인정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읍,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부안군 부안읍은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김동기 위원장을 비롯해 고문 1명과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제11기 부안읍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부안읍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동충동 지사협, 사랑 가득 반찬지원 나서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관내 결식 우려 가구를 방문해 '사랑 가득 찬' 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동충동 지사협 '사랑 가득 찬' 반찬지원 사업은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매주 1회 반찬을 직접 가정에 전달하며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핌으로써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다 보니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챙겨주니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조태봉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해표식품 영농조합법인, 고춧가루 파우치 후원

남원시 금동 관계자는 관내 해표식품 영농조합법인(대표 강성균)에서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국내산 100% 마른 고춧가루 파우치(200g) 90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건고춧가루는 관내 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해표식품은 평소 금동 지역 공헌에 앞장서 온 기업으로, 강성균 대표는 금동 장학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강성균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봉례 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해표식품 영농조합법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푸른 가족 행복한 지구' 3월 4일까지 김제서

김제시는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석규)가 국제로타리 3670지구 김제로타리클럽(회장 이장호)의 후원을 통해 오는 3월 4일까지 '푸른 가족 행복한 지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푸른 가족 행복한 지구' 행사는 김제 지역 내 경제적 소외계층가정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친환경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작품 전시회와 가족사진 콘테스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는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2층 리숨 사업단 체험장에서 폐우산, 커피박, 씨글라스, 가죽조각을 활용한 자원재활용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완성된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 및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사진 콘테스트가 예정돼 있다.

한편,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기관으로 설립되어 김제지역의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목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사 내방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